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등 선
편집인 성 창 은
주 간 안 영 효
편집장 김 형 만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한국외국어대학 발행

제 3 0 9 호
<주간>
1980년 11월 28일
매주 금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 천원)
등록 1960년 7 월 1 일
창간 1955년 4 월 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81학년도 모집요항 확정

총 모집정원 3,180명, 졸업정원 2,450명

법정대학중 홍보학과는 과별모집

신입생 전형 내년 1월26일, 면접으로

○…… 본대학의 전기 · 종합대학화 확정이후 첫 신입생모집인 81학년도 신입생모집요항의 윤곽이 ㅁ……○
○……어났다. 학교당국이 문교부에 승인요청을 한 요항을 확정된 내용을 보면 81학년도 본대학의……○
○……모집정원은 본교의 경우 2천 4 백명, 용인대학은 780명으로 전체 총 모집정원은 3 천 1 백80명……○
○……으로 밝혀졌다. 이정 야간강좌개설 10개학과 신입생 5 백20명을 제외한 주간 신입생은 모두……○
○……2 천 6 백60명이다. 이로써 81학년도 입학자 졸업정원은 총 2 천 4 백5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각 학부별 모집 정원을 보 으로 여학 단과대학의 모집면 서양어대학 (외국어학부증 정원을 옷볼고 있다.
서양어권 9 개학과) 은 1,019 입학원서 교부는 81년 1 명, 동양어대학 (동양어권 9 월 5 일부터이며 접수는 교부 개학과) 은 564명으로 편제의 처에서 1 월 19일부터 22일 외국어학부는 총 1,583명을 모 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 집하게 된다. 후 4 시사이에 실시된다.
계열별로 모집하는 법정대 신입생전형은 1 월26일 오 학은 195명을 선발하나 법정 전 10시 정각부터 면접으로 대학으로 편입된 홍보학과 39 실시하며 선택검사는 1 월29 명은 과별로 모집할 것으로 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알려졌으며 상경대학은 286명 1 차합격자는 1 월28일 발 을 모집한다. 표하며 최종합격자는 1 월31
또 사범대학은 130명, 문리 일 오전 10시 공고하게 된 과대학은 206명, 용인대학은 78 다.
0명을 모집한다. 각자별 모집정원은 다음과
한편 82학년도 1 학기부터 같다.
용인캠퍼스에서 수학해 최는 ▲서양어대학—영어과 : 338명, 문리과대학중 철학과는 과별 불어과 : 156명, 독어과 : 156명 모집하며 81학년도 2 학기에 노어과 : 97명, 서반아어과 : 15 이전하는 용인학중 무역 · 6명, 이태리어과 : 32명, 포어과 : 경제학등 2 개 학과는 계열 32명, 화란어과 : 26명, 스웨덴 별로 모집하게 된다. 어과 : 26명
현재 설치되어있는 10개 야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 149 간 계열학과의 모집정원 520 명, 일본어과 : 149명, 마인어 명은 신입체전형 50%를 제 과 : 32명, 아랍어과 : 10명, 외한 모집인원은 유동적인 것 태국어과 : 26명, 월남어과 : 26 으로 알려졌다. 명, 인도어과 : 26명, 퍼어키
과별로 가장 많은 신입생 어과 : 26명, 이란어과 : 26명
을 선발하는 영어과는 338명 ▲법정대학—정외 · 행정 · 법학 과 : 156명, 통보학과 : 39명▲상 경대학 : 286명 ▲사범대학—영 어교육과 : 26명, 불어교육과 : 26명, 독어교육과 : 26명, 한국 어교육과 : 52명 ▲문리과대학 : 206명 (철학과50명포함)▲용 인대학—영어과 : 156명, 불어과 : 91명, 독어과 : 91명, 노어과 : 52명, 서반아어과 : 52명, 포 어과 : 52명, 중국어과 : 52명, 일본어과 : 52명, 아랍어과 : 52 명, 무역 · 경제학과 : 130명

「외대의 향연」 개최 예정

학교당국, 일정에 난색 표명해

제6회 「외대의 향연」 행사가 현재 학도호국단에 의해 계획되고 있으나 학교당국에서는 행사의 일정에 난색을 표 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학교당국은 본대학이 전기대 학함으로써 입시관련 일자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전기학과 연결되어 홍보역할을 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수입이 1월 말까지 계속되므로 행사의 개 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 이 행사의 일 정 조정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른 학도호국단측은 본대학이 전기 종합대학화한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도 소 극적인 홍보만을 계속, 학생 의 질적저하를 방지할 수 없 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라 도 이행사는 예정대로 개최되 어져야 한다고 맞서고있다.
학도호국단은 계획하고 있 는 행사일정과 내용을 최대 한 축소하여 이번 11월25일부터 29 일까지 5일간 대구, 대전, 전 주 3개도시중 2개도시에서 개 최하여 축소판 세계민속제, 연극등을 공연하며 시화전도 열 계획에 있다고 하며, 모 의유엔 총회와 같은 새로운 행사를 기획, 본대학의 여학 력을 높시할 수 있는 방안 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CPA회원모집

12월6일시험실시

본대학 CPA연구실에서는 회계학 1 과목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본기, 경력학으로 시험은 12월 6일 오전10시에 CPA연구실에서 실시된다.

「국제 문화협」 주최 세미나

본대생, 국제논문모집 수상자 참석

문화공보부 및 한국방송공사 (KBS), 「코리아헤럴드」 주최,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주최한 제 1 회 국제논문현상모집 (주제 : 80년대 세계평화를 위한 나의 제언) 에서 37개 국 207편중에 최우수상수상자로 선정된 「벨기에」 의 Miss Yander Elst Fabienne 가 다 른 수상자 2명과 함께 본 대학을 방문, 세미나를 가진 다.
오는 12월 2일 오전10시부 터 12시까지 동현대학교 강 당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에 는 Vander 양은 물론 다른 우 수상자인 Paula J. Dobriansky 양 (미국하바드대학재학중) 과 미국 코넬대학생인 Roland A. Foulkes 군이 참석하여 본대 학에서는 동현대학원생 6명 과 학부 전이과학생 4명등 다 반(E · 3)—「마르크시스트」 미학 비판 정귀숙(KE · 4) —한국소설과 사회 윤 희수 (E · 3) —시와사회.

철학반 논문발표회 (송은수 · 4)
—「톳설」 의 내적 시간의식 이베전 (E · 4) —실재의 변 증법과 현상학적 기술.

연극반정기공연

고도를기다리며 공연

제 3 회 대학연극축전의 서 울지구예선중 하나로 외대연 극회 25회정기공연이 11월28 일, 29일, 12월 1 일 세차례에 걸쳐 본대학 강당에서 공연 된다.
이번 공연작품은 현대부조 리연극의 대표작인 S. 베케트 의 「고도를 기다리며」 로 김재 명(N · 2) 기획, 유동호(F · 4) 연출로 무대에 올리게된다.
20여개대학이 참가한 이번 대학연극축전의 본선은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경기 부 이스홀에서 있게된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리허설모습.

복수전공 30명 신청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교 무처에서 실시한 81학년도 복 수전공 신청에서 대상 3학 년 학생중 30명이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했다.
복수전공이수 신청은 3학 년까지 소정의 학점을 이수 하고 전체평균성적이 C클래 스 (평점 2.5) 이상인 학생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자별 신청자수는 아래와 같다.
각자별 신청자수는 아래와 같다.
▲F—1, C—2, R—1, I—1, P—2, N—2, Sw—3, Tu—1, M—3, Ir—2, H—1, Th—2, V—8, GE—1, (이상 30명)

교원자격증신청

미신청자 자격없어져

81학년도 졸업예정자중 교 직과목이수자에 대한 교원자 격증 신청이 29일마감된다.
교무처가 지난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기간중에 신 청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해당학생은 자격 무시험 검정허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병영입소생 귀교

지난 24일엔 위문 행사가져

지난 17일 엘름강의 병영 집체훈련을 받기위해 문무대 에 입소한 1학년 남학생들 이 지난 26일 오전 11시반 전원 무사히 귀교했다.
또 본대학에서는 이를 입 소생에 대한 위문행사를 지 난24일 오후 5시 서병완학생 처장을 비롯, 학과 과장및 각학과 대표, 학군단관계자등 약 200여명의 교수 · 학생 · 교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 했다.
이날 약 30분간 버름어진 위문행사에서 위문단은 전입 소생에게 본보 308호와 약간 의 다과및 음료를 전달하고 이를을 격려했다.
귀교한 1학년 남학생들은 11월27일부터 정상수업에 들 어갔다.

2 차에 5 명합격

제24회 행정고시

총무처에서 실시한 제24회 행정고시에서 본대생및 본대 학 출신자가 5명 합격됐을 이 밝혀졌다.
지난달 실시됐던 행정고시 2 차시험에는 본대생 1 차합격 자 20여 명이 응시했었다.
이들 2 차 합격자에 대한 최종면접은 오는 12월11일 있을 예정이며 2 차 합격자 명단은 아직과 같다.
▲요외학 (PA · 76을) 어인학 (PA · 79을) 최민호 (L · 80 을) 나동성(D · 4) 민병종(EC · 4)

초청 강연회

퍼어키어과 주최의 초청강 연회가 오는 12월 4 일 오후 1 시반에 연수원강당에서 있 을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의 연사로는 주 한퍼어키공화국대사인 Erdil Akay씨가 나와 「최근 퍼어키 정 치현황」 이라는 연제로 강연 을 하게된다.

학술

▲대학인 등원 1,335명
—이은문등의 방 값은 날 로 오르고.
▲특서열람속에서
—여대생은 여성잡지.
남학생은 스포츠지.

원 고 모 집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1980년도 저물어가고 있읍 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그동 안 독자 여러분께서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일들의 기 록을 모집합니다.
특히, 올 한해동안 발행된 본「외대학보」에 관한 신문 평을 환영하며 그밖에 논문 수필, 시등의 원고를 기대 합니다.

마 감 : 1980년 11월 10일 (수)
신문원고 : 20~30매

그밖의 원고 제한없음

외 대 학 보 사

차 고

본보, 다음주 12월 5일자는 휴간(休刊)하며 12월 12일 자로 발행 됨을알려드립니 다.
독자 제위의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독자 여 러분의 배전의 성원을 부 탁드립니다.

제18회 외대문학상 작품마감 12월4일

외대문학상 작품마감이 박두했읍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본사 주최의 「외대문학상」 작품마감이 박두했읍니다. 박토(薄土)의 대학여건에서 꾸준히 문학풍토의 배양과 외대문인의 산실로서 성장해 온 본 외대문학상은 외대인의 참자는 문학혼을 일깨워 새로운 가치와 정신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외대인이 다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각과 사상을 알릴 수 있는 본 문학상에 전외대인의 가열(苛烈)한 창작열을 기대합니다.

모집부문 : 시 (2편이상) 상금 7만원 소설 (60매 내외) 상금 12만원
평론 (50매 내외) 〃 8 〃 번역 (50매 내외) 〃 8 〃
접 수 처 : 외대학보 (학생회관 209호)

1 9 8 0 년 11월

외대학보

군 · 지원 행정 병 안내
더욱 알찬 실력을 쌓으려면....
■취직 · 유학 course
TOEFL · 高級영문해석 · 영작문 · 英小說
TIME · DIGEST · 三位一体
Word Power · Vocabulary · 기초영어
独逸語 · 日本語 · 佛語 · 国史 · 漢文
■大学編入 course
国語 · 英語 · 数学
역사가 가장 오래고 규모가 가장 큰 大一學院은 人文学院의 総本山입니다. 大一学院 成人部에서 취직 · 유학시험 合格의 栄光을 찾으시기바랍니다
서울역앞 동자동 삐스정류장앞 795-0111~3
大一學院
成人部 開講 매월1일 月수강료 6400원

대학인 서예 차드 펜글씨 도안 학원 ☎5346 ☎3771

대학생 · 일반인 수강료 할인 ▲작품전시회 ▲수료증 1기수료자에 한해 수여 ▲수강생 전원 초청 ▲서예 · 펜글씨 · 차드 · 도안 강좌 개설 ▲수강생 정원제 실시 ▲수강생 무료 주차 ▲교통편 편리

매월1일 개강
大学生講座
英語 · 日語
独 · 佛 · 中 · 西
英文解釋 英作文
TOEFL 美人会話
WORD POWER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본영어
英語실력기초 TIME
☆大学編入강좌 (国 · 英 · 数)
종로 2가네거리 파고다아케이드건너편
73-5788, 5789 74-1817, 6307, 6309
官認 I.L.I. 學院

大学生을 위한
開講12月1日
英語会話
English 900
時事 生活英語
민병철 生活英語
美人会話
시사영어학원
時間: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종로 2가 종각뒤편
74-2442.72-9226
時事英語学院

OXFORDCAMBRIDGEOXFORD
확장신서 ③
옥스브리지 대학문화
로버츠 지음. 황성모 옮김
…… 종교로부터 독립 / 르네상스의 위대한 학자들 / 종교개혁과 화형 (火刑) / 케임브리지를 대표하는 두 의석(議席) / 뉴턴과 흐어 / 트라이포스 우등시험 / 여학생 · 청강생의 지위 / 옥군대학이 된 캠퍼스 / 민방위사령부로 둔갑 / 사상에 위인 책들 / 밀턴 베이컨 · 워즈워드 · 테틀리 · 크롬웰 / 교수 선발 과정 / 옥스퍼드 · 케임브리지의 보무트 레이스 / 「메이 워크」와 자유의 함연 / 대학원 없는 대학원 과정 / 대학이념의 원천 / 교수는 시인, 학생은 비시인 / 대학교와 지역사회 / 뻐리대학교와 옥스퍼드 / 할레니즘 문화와 교수 / 대학문화와 민중이 보는 눈 / 문화적 상업주의 / 옥스퍼드의 철학 / 영국의 흉많성의 사과 대학
확장신서 ① 히비드천재들의 비보행진
② 캠퍼스의 사계절
서울종로구인사동 24의1 ☎ 74-8068

맑은 시력 / 세브란스 콘택트렌즈
종로 2가15 세브란스안경 2층
새로운 품질 / 휠콘 렌즈 G.P. 렌즈
TEL. 74-2250
상쾌한 착용감 / 세브란스 소프트렌즈
세브란스안경 2층 74-2250

사설

교육대학원의 설립에 부쳐

본교는 현재 교육대학원의 1981학년도 신입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한창이다. 본 대학원의 설립 동기는 본교의 종합화 계획의 일환으로 2세를 기를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교육의 대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문교 당국의 교육적 대계에서 찾아낼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사회화를 위한 가장중핵에 있는 장소로서,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이 만남으로 하여 시작된다. 그리하여 가르치는 선생은 학생들의 사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촉매자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은 옛날과 달라 그 기능에 있어서 큰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옛날의 문화가 기대하는 인간의 생활양식은 시간이 경과해도 크게 달라지거나 자주 변화하지않는데 비하여, 오늘날은 문화의 각 요소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의 기초가되는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충격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이러한 충격 속에서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을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우선 교사가 이러한 충격을 소화할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쌓았던 교육적 경험으로서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높은 교육적 경력을 쌓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넓고 깊은 안목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갖춘 교육자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른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발전적 조처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실, 본교의 교육대학원 설립은 어딘지 모르게 아직은 격 맞지 않은 감이 없기도 하다. 원래,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들은 인간의 문화창조 활동의 결과로써 축적된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계열의 문화 요소들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본교는 이와 같은 기초 과학계의 학과를 설립하여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와 관련되는 기초 학문 영역의 학과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초 과학계의 학과가 없음으로 인한 교수의 확보 문제 또한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수를 외래 시간 강사로 대치할 경우 야기되는 학생들의 반응이 염려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다. 이로 인하여, 신 입생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대를 갖게 한다면, 이는 앞으로 교육대학원의 발전적 풍토를 다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장애 요소로 남게될 것이다.

크게 될 사람은 어릴때부터 싹이 다르다는 속담이 말하듯이, 이 실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학교 당국은 끊임없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택동과 문화혁명을 재판한다

중공 4인방 재판의 실상과 배경

본보특별 시론

세계적 재판, 강청세력에 의해 수차 연기돼

재판의속개…모(毛)격하의 한계축소위한 전주곡

전중공 당주석 모택동(毛澤東)의 처 강청(江青)을비롯하여 60년대후반 문화혁명기간중 각종 범죄를 저지른 4인방과 71년 당시 국방상 임표(林彪)의 쿠데타미수관련자 6명등 10명을 단죄하기 위한 중공사상 최대의 정치재판이 20일 오후4시(한국시간) 8백80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경시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법원에서 개막됐다고 중공외무성이 밝혔다.

외무성대변인은 이날 강청(江青)과 장춘교(張春橋) 왕홍문(王洪文) 요문원(姚文元)등 4인방과 모택동의 비서였던 진백달(陳伯達)을 비롯한 임표사건관련자 6명등 10명의 피고가 출정한 가운데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중공최고인민법원장 강화(江華)의 개회선언으로 재판이 시작됐으며, 이어 수석 검찰관인 최고인민검찰장 황화청(黃火青)이 이들 피고인과 이미 사망한 관련자 6명등 모두 16명의 피고인에 대한 48개 죄목에 총 2만단어의 기소문을 낭독했다고 전했다.

4인방및 임표(林彪) 잔당에 대한「세기의 재판」이 이날 TV로 전세계에 우주중계되었다. 7분간 방영된 이 재판광경에서 가장 먼저 비친 장면은 정장(재판장)인 강화이며 그의 호명에 따라 입정한 피고는 왕홍문 전당부주석. 왕은 바싹 깎은 머리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 다음 요문원(당정치국원) 강등교(江騰蛟·남경군구공군정치위원) 구회작(邱會作·해군참모차장) 오법헌(吳法憲·공군사령관) 황영승(黃永勝·군총참모장) 진백달(당정치국상임위원) 이작붕(李作鵬·해군 정치위원) 장춘교(부수상) 강청(모택동처)순으로 들어왔다.

임표 4인방기소장은 모두 4만자에 달하는 두꺼운 책 한권의 부피에서 또 하나의 삼국지를 저술하기에 충분한 소재를 담고있다고 한다. 문화혁명이 개시된 66년부터 4인방이 실각한 76년까지 10년동안에 걸친 권력전횡자들의 48개 항목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

임표와 4인방의 행위로 모함 박해 원죄(冤罪)사건등이 많이 지적되었다. 중국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권모술수가 그10년동안에 복합되어 실시를 이뤘다고볼수있다.

그러면 중공은 도대체 왜 지금까지 여러차례 미뤄온 4인방과 임표등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게 되었을까?

이런 사정은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중공안에서 파생적으로 논의되던 모택동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더 이상 늦추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바로 이 사건들에 대한 중공고위지도자의 여러차례에 걸친 재판시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소조차 할수 없었던 이유는 이 재판이 곧 모택동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중공지도층은 모택동격하의 한계를 어느선까지 몰고가느냐는 문제로 지도층내는 물론 국민들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 중공의 지도층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내외의 여론을 수집했으며 간간이 모(毛)격하의 한계를 조금씩넘어서는 발언을 흘려 그 반응을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는 중공내의 광범한 계층이 대체로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더구나 해외의 반응도 4인방에 대한 재판이 당초 중공의 각본대로 정치재판의 성격보다 형사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다는데 중공당국은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의 한 [illegible] 인사는 보고있다.

중공은 당초 4인방만 재판에 회부하려던 노력을 포기하고 임표 그룹에 대한 죄상까지도 묶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야만 이번 재판에서 모택동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고위층이 설정한모(毛)격하의한계를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소장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있다. 4인방등은 ①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의 전복기도 ②당간부및 일반대중 탄압 ③모택동과 현 당부주석등 당지도층 암살및 쿠데타음모 ④상해무장반란계획등 모두 48가지의 특별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이다.

즉 4대죄상이란 것은 그들이 모(毛)를 움직여 다른 지도자들을 모함, 박해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박해진압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무력반란을 일으켜 모(毛)는 물론 당권력자들 까지도 찬탈하려했다는 요지다.

중공당국은 두꺼운 책두께만한 장문의 기소장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례로서 4인방과 임표일당들이 1960년대 소위「내몽고인민혁명당」파괴를 획책, 그 과정에서 34만6천여명을「모함 박해」하고 1만6천2백22명을 처형했으며, 1968년 이른바 대 자유중국협력자 색출기간중 운남성에서 1만명이상을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또 하북성에서도 정직을 박해, 8만4천명의 당원및 민간인을 숙청하고 2천9백55명을 살해했으며 군부대내에서도『사건을 조작, 8만명을 포함하여 이중 1천1백69명을 처형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이 기소장은반모(毛)쿠데타음모, 죽은 전수상 주은래(周恩來) 현 당부주석 등소평(鄧小平), 사후 복권된 전국가주석 유소기(劉少奇)등에 대한 박해및 음모들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이러한 기소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4인방의 리더격인 강청은 그녀의 죄상을 조사하고 예심하는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을 보인 것으로알려졌다. 재판에 앞서 주성교도소로 이송된 강(江)은『모(毛)와주(周)를 업고 정치를사물화했다』는 검찰관들의 반박에 대해, 모든 정책의결정권은모(毛)와 주(周)양인에게있었다고 반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강(江)은『모주석을믿고당을 지지했다』고 주장하고『이기면 관군이고 지면적군이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유죄와신문을 거부하고『개를 때리면 먼저 그 주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중국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녀와 모(毛)를연관시키려고갖은 노력을 다한 것으로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공당국은 강청을 굴복시키고 문제의 인물들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는 설도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검찰부의 기소가 예상보다 지연됐음을지적하고, 재판이 지연된 것은 중공당국이 장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제피고인들의 형량에 관한 이견조정 때문이었던 것으로보고있다.

만약 이같은 추측이 사실이고 이들의 재판에 대한 지도층내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면 피고인들이 중형을 받을 것은 거의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4인방과 임표일파에 대한 기소장내용으로보아서도 이들은 극형을 면치 못할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들에 대한 기소장의 내용을 발표함과 때를 같이 하여 15일 4인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 극좌세력들을 뿌리뽑기위해 문제의 인물들에「반(反)혁명죄」를 적용, 사형선고를 내릴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인민일보」는 법률전문가인장우어(張友漁)가 쓴 장문의논평기사를 통해『4인방의 재판이 연기되면 반혁명분자들이 이를 틈타 또다시 정권을 장악할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지적,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지난 1월부터 발효된 새 형법은 국가와 인민에게 해독을 끼친 반혁명분자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중공내부에서 일어났던 권력투쟁의 실상이 드러나고, 현재의 권력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이번 재판이 고 모택동에대한 간접적인 재판인 동시에 과거 중공을 파멸의 직전에까지 몰아넣었던 문화혁명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공내부에서일고있는 모(毛)에대한재평가작업과 노선투쟁에도 이번 재판은 적지않은 파문을 미칠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도 하다.

지난 66년부터 10년간 계속된 문화혁명 자체와 그 여파는 전중공내에 일대혼란과 격변, 그리고 경제·문화적인 큰 후퇴를 가져왔다.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65년당시 국가주석 유소기일파와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던 당주석 모택동은 유일파가 장악하고있던 북경을 가리켜『북경시내 어디를 가도 바늘 하나 찔러넣을 틈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당시 북경시장은 유소기의 심복인 펑진(彭眞)이었고 부시장은 오함(吳晗). 모(毛)는 그해 가을 4인방중 장춘교와 요문원이 장악하고 있던 상해로가서 요에게 오의 연극작품인「해서파관(海瑞罷官)」을 비판하는 논설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해서파관」은 59년 모에 의해 쫓겨난 국방상 팽덕회(彭德懷)의 해임을 비난하는 내용의 연극이었다.

이와 같은 오의 비판논설은 온건파및 유파의 일대반발을 불러일으켜 이것이 곧 그후 10년간 계속된 문화혁명의 불씨가된셈이다. 문화혁명은유파(劉派)에의해제2선으로 밀려난 모파(毛派)가다시실권을잡기위해 꾸며낸 탈권(奪權)투쟁이었던 셈이다.

정치적 야심이 강한 강청등 4인방은 모의 후광을 등에 업고 군의 실권을 장악한 임표등과 공모하여정권탈취의 계기로 삼았다. 학생주축의 홍위병(紅衛兵)과 노동자중심의 조반단(造反團)이라는 폭력단체를 조직하고, 이들로 하여금 각 지방의 권력기관을 장악하도록하여 그 기관의 권력자들을 비난 구타 감금했다.

당시 국가주석 유소기가 자기비판을 하고 북경시장 펑진과 군참모총장 나서경(羅瑞卿)이 거리로 끌려나와 박해를 받는가하면 서향전(徐向前) 군문혁조장 엽검영(葉劍英) 국방위원회 부주석진의(陳毅) 국방위원회부주석등 이른바 실권파등의 거물들이 비난을 받기시작했다.

실권파를 공격 비난하는 대자보와 홍위병신문이 나오고 인민일보는「부르지와 계급의 본부를 공격하라」는 사설을 썼고 유소기는 68년10월 제8기 12회 당중앙위총회에서「배반자」「노동귀족」「자본주의자」라는 비난과 함께 당과 국가기관으로부터 영구히 제명되고 말았다.

장청등 4인방은 중앙으로 부터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실권파 간부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살해하는 등의 모진 횡포를 자행했다.

현 지도층의 간부가운데 문화혁명중 박해를 받은 국가지도자만 해도 4백5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등소평도 실각됐다가 73년 다시 복권됐으나 76년 4월5일 천안문광장사건후 다시 실각됐다.

문혁파에 의해 실각된 유소기 등소평파의 고위간부로서는 옥중사망한유소기, 등소평, 펑진, 박일파(薄一波), 양상곤(楊尙昆), 진운(陳雲), 육정일(陸定一), 왕광미(王光美), 진위 라서경 주덕(朱德) 등이다.

반면 문혁중에 득세한 이른바 문혁파는 4인방을비롯하여 강동흥(江東興) 진석련(陳錫聯) 기등규(紀登奎) 오덕(吳德) 과 임표일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종범60명이 이범주에 속한다.

김덕형
<조선일보기자>

문혁과정에서 수많은 당지도자와 수십만의 인민이 희생됐다는것이 재판을 주도하는 현 중공정부지도자들의 주장이다. 말하자면 모택동까지도 여기에서는 일종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중공정부는 오늘의 이 재판을 통해 처음에는 모택동을 수많은 피해자중 가장 뚜렷한 한사람으로 설정해 놓고서는 정작 그 이면에서는 가장혹독한 가해자, 즉 이번 재판의 보이지 않는 최대범인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중공은 그동안 사실상 모택동에 대한 당의 공식평가를 거의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공은 오는 제12차당대회에서 이를 공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며, 그 전주곡으로 4인방과 임표일파의「극렬한 죄상」을 형사사건의 형식으로 심판대에 올려놓은셈이다.

즉 이번 재판을 통해 중공지도층은 모택동이 저지른 잘못을 전 세계에 밝히는 책략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아직껏국민대중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모(毛)의 카리스마에 대한 측면적이면서도 공개적인 도전을 하는 한편, 모의 잔당으로 아직껏 현재 중공권력의 수뇌부에 남아 있는 후면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고자 하는 은밀한 계다도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공이 이번 재판을 여러차례 지연시킨 또 다른 이유는 강청의 완강한 저항이외에도 문화혁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아직껏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불안요인도 적지않게 고려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당총서기 호요방(胡耀邦)도 지난 4월에『북경에는 극좌파의 테러리스트조직이 있으며 공안보가 그들의 체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11월에 발생한 북경역의 폭파사건도 극좌파의소행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다.

어하튼 중공이 이처럼4인방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것은 그들의 정치노선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세력에 대한 선제공격의 한 형식으로 보는것이 온당한 풀이일 것같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무드를 맞추기 위한 요식절차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략의 시선을 고는데 부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택동의 카리스마적 인상제거 기도

중공내 권력투쟁의 실상폭로 예상

모(毛)추종파와 문혁(文革)세력의 일소위해

미네르바

마지막항로

▲사람들은 흔히 내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속에 살아간다.

「이번 항해를 마지막으로 이배는 처분되어진다. 그러나 이번 항로가 이배의 마지막 항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해설로 시작되는「시네마」가 있다. 그 배에 탄 전원은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듯이, 아무도 오늘이 자기의 마지막 삶이란 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다.

▲세기의 위대한 무용가였던「이사도라던칸」역시 그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모른채 마지막 삶을 보냈다.

아무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혹은 언제날인지는 모른다. 단지, 「포세이돈어드벤쳐」에 나오는 탑승한배와 같이 천천히 자기의죽음을 향해 모두 돌진해 간 셈이다.

▲「인간사새옹지마(人間事塞翁之馬)」라는 고사는 이러때 적합한 의미를 지닌다. 항시 사람의 일은 한치앞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행해지는 모든일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최선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영화에 나오는 그 배와 같이 서서히 죽음으로 깊이 빠져 간다는 사실을 모른채 살아가는 자아도취적인 인간이 그것인 것이다.

▲그와는 또 반면에 마지막 항로를 쥔 비행기가 있다. 그 비행기의 기장이나 또는 영화에 나오는 배의 선장들은 모두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가 사랑하는 비행기, 또는 배와같이 죽음을 택하는 위대한 죽음의 예도인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누구나 마지막 항해를 영광스럽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신념과 영달을 위해서, 진정한 항해의 의미에 깊은 뜻을 부여하지 않고서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분노한다.

▲망망히 죽음의 늪으로빠져들어가는마지막 항해 그러나 거기서 탈출하려는많은 사람들. 천천히 바다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대한 배를 보며 승리의 환호를 부르짖는 가엾은「포세이돈」, 예술을 위해 태어났다는「이사도라」. 아무도 그배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으며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우리 생활자체가 마지막 항해(The last voyage)인 것이며, 이세계에선 마지막 항해가 시시각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두 그의 죽음속으로 빠져 간 셈이다. 단지「포세이돈」의 짐승같은 소리만 울려퍼질뿐.

미네르바자(子)는 계속 영화 얘기로 나간 까닭이다.

<창>

한국 외국어대학의 종합대학교 승격 및 용인 종합캠퍼스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인중기주식회사 전무이사 손규식
한양주택주식회사 전무이사 주상국
범한서적주식회사 전무이사 윤태선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지점장 김석현
상업은행 이문동지점 지점장 김태훈
제일은행 종로지점 지점장 천순일

□본대학 지역연구소의 실태를 알아본다

「지역 문제 연구소」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지역학 연구가 그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지역학 연구는 국제정치상의 주요한 ,역학관계로 말미암아 선진외국에서는 이미10여년 전부터 괄목할만한 연구업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학자들을 제외하면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은 지극히 낮았다고 할수 있다.

본대학은 18개국어라는 다양한 외국어학과를 수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학 연구의 전초기지로서 훌륭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늦게나마 국가적인차원에서 강조되는 지역학연구에 본대학이 담당하고있는 역할이 아울러 ,강조되는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함인지 본대학은 78학년도에 이어 교과과정에 지역사정을 더욱보강하는「커리큘럼」작성에들어갔다고 밝히고 기존의「지역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한다. 새로운 차원에서 살펴보면 외국어학(語學) 중심의 교육과정이 어학과 그에 따르는 지역학이 함께 조화를 이룰때 완전한「외국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뜻있는 대학인의 한결같은 바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연구의 첨병의 역할을 다해온 본대학의 지역연구소의 실태와 문제점을 개진해봄은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대학에는 이미 69년부터 8개의 지역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각지역문제를 전담하는 6개연구소―「중국문제연구소」「소련및 동구문제연구소」「중남미문제연구소」「중동문제연구소」「아프리카문제연구소」「한국지역문제연구소」(소장·남성우교수) 등이 그것인데 본대학의 특수성을 유지하는데 큰 몫을 다해왔고 이미 몇편의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내 제(諸) 연구소들이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이렇다할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본대학은 대학원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8개 지역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각 지역문제 연구소와 이들과의 유기적관계가 요구되고 있는것이다.

연구풍토의 개선을

무엇보다선행되어야 할 것은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좀더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필요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연구풍토 조성이 시급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모든 대학들이 한결같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그렇듯이 당장의 성과가 불투명한 연구에는 만족할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학에서의 연구풍토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충분치 못한 사학(私學)으로서도 대부분이 충분한 물적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실상 대학부설 연구소중「연구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만한 곳은 K대의「아시아문제연구소」의 한곳이 고작인데, 그 여건이란 바로 독립된 전용과 충분한 재정지원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연구원들 자신의 꾸준하고 능동적인 연구의욕이 부족한 면도 많이 지적이 되어오는 문제중의 하나로 꼽을수있다. 연구원의 사기저하가 근본적으로 충분치 못한 재정의 궁핍에서 오는 것이라지만 최근에는 시류에 부응한 연구소 난립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한다. 중국문제연구소장 허세욱교수는『자체능력이 없는 연구소의 난립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연구진용(陣容)과 연구성과 또 연구기금 이 삼자가 확실한 상태에서만이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된다』고 강조한다.

대학의 연구여건

모든 담당자들이 갑히『연구소들은 침체상태』라고 규정짓는 이유는 바로 재정난때문이라한다. 연구소에 있어서 1년계획은 대개 세미나 1회, 연구지발간 1권이 통례이지만, 이나마「세미나」는 한번도 열리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물론 연구소 자체내의 의욕부족도 그 원인의 하나이겠으나 보다 큰 문제는 각 연구소가 심한 연구비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세영대학원 교학과장은 본대학전체연구소의 1년 예산은 약 2천만원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중 종합연구논총발간보조비에 250만원 논총발간을 위한 연구자연구비가 640만원, 연구소운영비가 480만원, 연구활동관계회비 60만원 등속이 그 내역이다. 이 예산을 8개연구소로 나누면 한 연구소당 1년치 운영비가 60만원, 기타연구보조비는 100만원이란 계산이 된다. 그러나 기타연구보조비의 경우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모두 타쓰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하니, 상식적으로도 매년 발간되고 있는『연구지 한권 제대로 내기 힘든』상태인 것이 짐작될 것이다.

그 밖에 한연구소당 1년에 4~5건의 정부용역(Project)을 받아 연구하게 되면 약간의 보조금이 충당되지만,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 본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학내 각 기관의 증대 및 활성화가 요청되는 지금 연구소의 활성화 문제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하겠다.

이러한 재정난때문에「중남미문제연구소」(소장 : 김이배교수)와「아프리카문제연구소」(소장 : 박원탁 교수)는 79년도에 논총을 통합발간하기도 했고 내년에는「연구소협의회」(회장 : 유정렬교수)에서각연구소의 연구발표를 종합해서 발간해 낼 계획을 세우는 등의 궁여지책을 짜내기도 했다. 특별히본대학은 연구소마다 훌륭한 인재들을 수용하고 있고,「소련및 동구문제연구소」(소장·강흥주교수)의 경우 소련문제관계 자료에 있어서는 국내최고(2,700여권)라고 한다. 그러나 그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소련및 동구문제연구소」는 특별히정부의 시책에 따른지원이매년 5천만원상당에 이르고 학교지원도 4·5백만원 선이어서 다른 연구소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활발한 연구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시내 H대학에서는 같은 성격의 연구소에 연구원이 없는 상태인데도 5,000만원의 지원을 하고있다고 지적한다. 즉 자칫하면 이제까지의 지역연구활동의「이니셔티브」를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내 연구소 모두에게 적용될수 있는 위험인데 한 담당자는 이를 위해선 보다 많은 학교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력히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타대학의 A연구소처럼 독자적인 재단법인을 설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고있다.

체계적인 전문연구요원 양성을

한 담당자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Teaching과 Researching을 분리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단국대가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는 보다 전문적인 학문연구를 위해 바람직한 경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대학에서도 Teaching 중심에서 탈피하여『연구소와 상응하는 대학원과목을 설치하고,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아래 대학원생을 전문화시키고 재정지원을 해서 필요한 분야로 배출시켜야 할것』이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몇몇 연구소는 이미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젊은 학자들이 많아서 따로히 전문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충분히 실습을 할수 있는 연구소와 대학원생과의 유기적관계는 곧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각 연구소의 조교나 정부용역이 있을때 보조원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대학원과의 관계는 거의 없었는데 이때문에 본대학 출신생들을 자체내에수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는것이다.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어학의 경우 3·4학년이 수강케 되어있는「지역사정」이 너무 피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자주 있어온 탓인지 교과과정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는「지역사정」과목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대해서는『본대학은 어문학중심이므로 지역사정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어야 할것』이라고 현재 수준을 주장하는 견해와『어학의 한계를 탈피하고 본대학의 장래를 위해선 지역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상반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기왕에 설치된 대학원의 지역학과와 지역문제연구소가 충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점차 학부에도 그 영향을미치게 되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다. 특히 국내의 S대(大)서도 최근 지역문제연구가 활발한 점을 주시한다면 본대학에서도 주어진 좋은 조건을이용 충분한 연구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조사부>

◇본대학의 발전을위해서는 어학의 한계를 탈피하여 지역연구가 더욱활발해져야한다. (사진은 76년 6월에 열린제2회중동문제세미나).

> 본대학 지역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아래 대학원생을 전문화시키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필요한 분야로 배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문 크로니클

서점규모 확장시급

○…종합대학이 내일 모레인 차제에 학내 복지시설에 관한 새삼스러운 한마디 얘기 더.

학생회관 1층의 몇평 남짓한 방이 교내 서점이자 문방구 점인데, 본대학만한 규모를 갖춘 서점은 시내 어느대학에서도 드물 것이라는것이 학생들의「시니컬」한 불만토로.

먼저 장소가 협소해서 불빌때는 물건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18개 외국어학과를 갖추고 자·타가 공인하는 외국어교육의 전당으로서 교양도서이나, 전문 외국어서적은 고사하고 교과서조차도 때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

출판부도 문제이지만, 현재 구내 서점의 규모 확장 또한 종합대학 체면을 위해서도 시급한 듯.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요즘들어 학생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있어 사실을 알아 본 즉.

성급한 일군(一群)의「훈산즈」들의 말을 빌자면 당초 학사일정과는 달리 조기방학이 이루어지리라는 것. 이미 학부별로 몇몇 과목은 내달 초부터 시험을 실시한다니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알쏭달쏭.

반면에 책임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모두가「뜬소문」이라고. 아뭏든 덩달아 기뻐하는 학생들도있어 문제이지만, 이상 난풍이 계속되는 즈음 잿밥에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책이나 읽으시도록.

○…며칠전 1학년 병영 훈련소 위문행사 당일에 있었던 얘기 한토막.

위문을 갈 수있는 대상은 교수, 호국단 임원및 간부학생들로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위문을 가겠다고 나선 학생들이 많아 당초 계획에 약간의차질이 빚어졌던 것.

행사를 주관하는 일부에서는 많이가면 병영훈련소에서 혼잡을이룰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열화같은 위문의 열(熱)을 만류하려 했는데, 학교당국의 배려로 나선 학생들 모두가 가게돼 문제는 일단락.

결국 아무 잡음없이 다 가게 될 것을 가지고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이 다녀온 사람들의 촌평(寸評).

○… 2학기 개강이후 학교 앞 풍경이 조금 변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바.

대학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업소(業所)가, 본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에 따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날 조짐이있다는 얘기가있어.

바야흐로 이문동 일대의 땅값이 올라갈 모양인데, 종합대학승격에 땅값, 상승이라…, 필연적인 함수관계인 듯.

필연적 함수관계

인터뷰

"봉사정신으로 최선을 다할터"

□신임 민만식 도서관장 인터뷰

평소부터, 도서관에 많은 관심 가져
열람석수 총 1,600석으로 늘릴 계획

민 만 식 교수

도서관은 자습실 상태에서 탈피, 참고도서등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장소가 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어떠한 운영방식으로도 늘 학생들의 불만거리가 되어온 도서관의 장(長)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닐것이다. 도서관 좌석수가 부족하다. 신간 도서의 구입이 늦는다. 소음방지를 위해 적어도 참고실과 일부열람실과 카페트를 깔아달라. 도서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등의 요구사항이 산재해 있는 현재의 도서관에 대해 그래도 낙관론을 펴는 사람이 한 분 있다. 이번에 신임 도서관장 직을 맡게 된 민만식(정외과)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중남미정치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로 학생들간에 잘 알려진 그는 1963년 본교에 부임한 이래 교무처장과 대학원 교학과장직을 거치는 동안, 평소에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하나하나 검토,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친절과 봉사정신을「모토」로 학생들의 도서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도서관은 운영할 방침이라고 소신을 밝히며 이미 본보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는 몇가지 도서관 실태에 대한 대책을 겸쳐 놓는다.

우선 내년도 신입생의 대폭증원으로 좌석수의 부족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현재 도서관 건물 4층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 민속의상 전시실의 일부를 개조, 시설물들을 보완하여 열람실로 사용, 600석의 좌석을 확보 총 1,600석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사용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생들의 신간도서구입 신청에 대한 도서구입결정여부및 신속한 구입에 관한 문제는 사무처리상에서 다소 지연되기도 해왔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출판물일 경우는 예산에 관계없이 구입신청에 응하고 있다며 좋은 도서의 추천을 위해 학생은 물론 특히 전공담당교수들의 우수도서 추천에의 협조가 긴요함을 강조한다.

내년도 분교의 용인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사정은 현재에비해 크게 차질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분교 도서관의 신축으로인한 장서의 분리와 인적원의 이동에관한 기자의 연려에, 이미 분교를 위한 도서비의 책정으로 도서구입이 진행중에 있으며, 운영은 당분간 본교에대한「용인도서관 분관」의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민교수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자세가 자습실상태를 탈피, 참고도서를 많이 이용하여 연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타대학에비해 전공에관한 학술지나 원서를 많이 구비하고 있는 본대학 도서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말을 맺는다.

얼마전 제안이 들어온 열람실의 소음방지를 위해 카페트를 까는 문제는 우선 시와 그밖에 다수인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몇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않다며 검토해 보겠다는 그의 말에서 기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러 독자와함께 보다 나아질 도서관의 내일을 기대해보는 것이다.

<신선희 기자>

학내 미해결요인, 얼마나 제거 되었나 <2>

분교, 남은 문제점들을 위해

<차례>

1. 2부대를향한 적극적 관심을
2. 분교, 남은 문제점들을 위해
3. 대학원 내실화가 절실하다
4. 교수 문제 얼마나 해결되었나

전임교수 확보 시급한 문제
「서어클」및 자치활동에도 지원 필요해
용인 캠퍼스, 부대 시설에도 만전을

본대학의 분교는 타대학의 경우와는 달리 종합대학교를 향한 시발점으로서 설치 당시부터 학교당국은 물론 전대학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분교를 설치함으로서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에 궁극적으로 종합대학교를 이룩하기 위한 포석(布石)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된것이다. 따라서 본대학만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분교에 대해서 학교 당국의 관심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어전히 몇가지 문제점은 남아있다.

본대학 용인분교는 지난해 E·F·G S·R·A과등 6개학과의 3백명을 선발, 현재 건설중인 용인캠퍼스가 일부 완성될 때까지 본교에서 수학(修學)하도록 되어있다.

맨처음 지적할 문제점은 학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수 없다는 점이다. 그간 학내인구의 평창에 따라 한정된 캠퍼스의 여건 때문에 강의실문제, 기타 학내 시설물등을 이용하는데 분교생들에게 불편함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곳은 학군단 건물 3·4층인데 위치로 보아서 학교의 후미진 곳이고, 제한된 강의실영역으로 분교 학생들과의 유대관계에 보이지않는 위화감이 없지 않았다.

지난학기 몇몇 불만요인이 있었지만 앞서 밝혔듯이 기왕에 종합 대학화를 향한 하나의 전초지로 분교를 설립하고 용인에 캠퍼스를 건설, 1990년대에 완전히 본대학을 이전한다는 구체적 계획아래에서는 학교당국과 학생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로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때라고 뜻있는 대학인은 말한다.

지난 한학기동안 말썽이 되어왔던 명칭문제가 한국외국어대학「용인분교」에서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대학」으로 개칭됨으로써, 일단「동질화 위기」까지 거론되었던 이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지난학기부터 누적되어왔던 요망사항들의 미해결로 인한 분교생들의 사기저하는 크게 우려되어왔고, 근본적으로 본교생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명칭의 개칭만으로 분교의 실질적인 불만요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교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수 있음직한 일이다. 분교 당국자들이나 학생들이 한결같이 우선으로 꼽고 있는 요망사항은 충분한 전임교수의 확보문제이다. 2부대의 경우와 달리 분교는 내년에는 용인캠퍼스로 옮겨가야 하기때문에 기존의 본대학 교수진만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한다.

학교당국에 따르면 81학년도에 43명의 교수가 확보된 것이라 하지만 현재 전임교수가 단 한사람 뿐이고 외래강사의 강의 담당비율이 37%정도로 1학기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나 대학졸업정원제에 따라 내년에는 11개학과, 780명이 새로 입학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때, 보다 폭넓은 전임교수의 확보는 분교행정의 어떤 측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문제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용인 캠퍼스로의 이전 후 통학상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보통 서울 시내에서, 용인캠퍼스까지 대다 1시간30분 가량이 걸린다고 할때 학업에 지장이 있을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당국은 비포장 도로를, 현재 용인캠퍼스 부근에 건설중인 기타대학들과 협의해서 하루속히 포장도로로 바꾸어 통학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년 분교생들이 이전하기 이전에 도로포장이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공사중인 건물들에 어학실습설비, 도서관장서구비등 부대시설에도 성의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학생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문제가 있다.

2학기 들어 현재 분교는 2부대와 마찬가지로 호국단의 일부 체대로 편성되었으나, 독자적인 편제를 가지고 7개의 실무부서가 있다. 그러나 공동행사를위해 분교 호국단단비의 일부를 분교에서 사용하도록 결정된 것은 내년부터 분교가 용인대학으로 행정상 분리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타결점이 찾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분교 학생들이 이문캠퍼스와 동등한 학생자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장기적 안목으로 대학발전을 위한「플랜」이 마련된 이 시점은 본교·분교의 개념을 떠나 나름대로의 발전을 통한 조화로운 대학사회의 건설을위해 모두가 작은 이익에서 떠나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인 것같다. <준>

종합대학교 승격 및 용인 종합캠퍼스 착공

慶 外大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祝

<무 순>

버너양행 사장 안인모

유화증권주식회사 사장 송영균

홍성교역주식회사 사장 조한구

우양실업주식회사 사장 하우양

천경해운주식회사 사장 신기석

금강상사주식회사 사장 김철

(주)K·D인터내쇼날상사 사장 용울식

화양행주식회사 · 화인화학주식회사 · 화인공업주식회사 사장 유회수

조훈산업주식회사 사장 민진평

한라양행주식회사 사장 변영준

동양철관주식회사 전무이사 박영호

불이양행 사장 이형우

미네르바의 후예들

(7) 민용태 편

자연과 인생에 대한 매력적인 성찰

이영걸 <시인>

> 혼돈의 한계선 근처에 사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현대에 사는 인간은 고독하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들에서 고독을 씹어오며, 많지않은 연륜속에 배출된 본대학 출신의 문인들. 지극히 비문화적인 풍토에서 초연히 자라「미네르바의 후예들」로 어느새 우리앞에 나타난 이들. 물론한 분한분 상세히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본보 나름대로의 고충상 그중 몇몇 문인들만 소개해 보았다. 그동안 이난을 위해 애써주신 필자 여러분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문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호로 「미네르바의 후예들」편을 끝맺고자 한다. <편집자주>

민용태 시인은 스페인에 유학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교에 돌아와 가르치고 있는 분이다. 십여년 전에「창작과비평」지를 통해 등단하였지만 그동안 해외에서 지냈기에 활동의 단절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등단한 시인들 사이에는 친근한 이름이다. 필자 역시 오래전에 읽은 그의 초기작의 인상이 뚜렷이 남아있다.

스페인에 있는 동안 학문의 성과 말고도 시인으로서도 큰 활동을 펼쳤다. 우리 시를 번역 소개하는 동시에 스페인어로 쓴 창작시집도 여러권 냈다.

나는 그를 만나기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재학시절에 시부문 외대문학상을 받았으며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스페인문학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간혹 시 작품도 발표하였다. 서정주 선생이 세계일주를 할때 스페인에서 그의 안내를 받고 텔레비젼 인터뷰까지 했으며 그가 그곳 문단에서 널리 알려진 존재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매우 기뻤다. 더구나 오랜 외국생활을 보낸 후 귀국의 용단을 내리고 모교로 오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다 하겠다.

여태까지 스페인어로 쓴 창작시집과 우리 시의 소개로 뜻 같은 업적을 냈지만, 이제부터 한국 시인으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오래 전에 읽은 초기시 외에 근년의 작품도 수시로 접했지만 내년에 출판될 그의 시 원고를 통독하고 비로소 그의 시 세계를 알게 됐다. 이백자 원고지로 약 280편이 되는 이 원고에는 1958년에서 1975년에 걸쳐 쓴 작품들이 수록돼있다. 찬찬히 음미할 여유가 없지만 대체적인 그의 관심을 소개하고자한다.

「고향」이라는 작품에는 십년만에 귀국한 이의 심경이 평범한 문체에 표현돼 있다. 과거의 고향 풍속과 변화한 현재의 모습이 대조돼 있다.

> 밤은 다정한 호롱불의 눈을
> 빌리기 전에
> 전등불에 쫓겨 달아나고
> 새벽은 간밤 이불속 온기를
> 잊어
> 눈을 비비고 있을 시간이 없
> 다.
> 비스듬이 누워 천년을 피새
> 김하던
> 황소의 졸음은 간 곳이 없
> 고
> 고향은 이 후진국의 유산을
> 성냥곽 같은 문화 주택과 맞
> 바꿔 버렸다.

<밤>과<호롱불>과<새벽>을 의인화하여 옛날의 풍속에 대한 향수를 쉽게 표현하고 있다「범바위 산 마을」이라는 시에도 기억이 취급돼있다. <도토리알보다 작은 초가집들이/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서경과 서정이 어울어진 인상적인 구절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쓴 시집이기에, 또 작품 제작연대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기에 문체와 관심의 변화를 추적할 수 없지만「황혼의 절규」같은 작품은 오래전에 읽은 초기작의 하나라는 확신이 든다. 젊은 시절의 정열과 패기가 적절한 진술에 표현돼 있다.

> 신은 있어야겠읍니다.
> 인간이 인간을 위해 인간을
> 죽이는 곳에
> 동포가 동포를 위해 동포를
> 죽이는 곳에
>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죽이
> 는 곳에 떨리는 사수의 총
> 열을 바로잡아 줄 신은 있
> 어야겠읍니다.

오랜 세월 후 귀국한 이의 향수와 시대와 역사에 대한 젊은이의 고뇌와 함께「나들이」같은 시에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매력적인 성찰이 있다. 평범한 문체를 통한 관조와 사물의 정확한 관찰이 있다. <살의 소태맛을 알기 전/한번쯤 나들이 삼아 산으로 가게>로 시작되는 이 시는 여름의 왕성한 자연을 묘사한 후 겨울로 독자를 이끌고 간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고 있다.

「소 치는 아이」에는 비유의 연속이 있다. 아이의 눈에 소는 <고삐가 풀린 산>으로도 보이고 <하나의 고목>으로도 보이고 <넘실거리는 강물>로도 보인다.

이처럼 민용태 시인은 다양한 관심을 대체로 평범한 문체에 담으면서도 현대시의 여러 기법을 온건히 구사하고 있다. 초기시에는 강렬한 몸짓과 어조가 있지만 근년의 시에는 보다 은근한 기법과 시어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인생의 성찰과 명상을 펼치고 있다.

오늘 처음으로 통독한 그의 시 세계의 전모를 자상히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다. 어서 한권의 책으로 나와 여러 독자의 이해와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시집의 상재를 계기로 다년간 탐색한 모티브에 근거하여 보다 깊고 넓은 세계를 펼쳐 주기를 염원한다.

시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지닌 이 시인의 생활이 어서 빨리 정착되고 한국의 삶과 자연과 역사에 더욱 밀착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외국시의 소양과 한국시에 대한 열정이 훌륭히 결합되어 우리 시를 위한 한 경지를 개척해 주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끝>

젊은 시절의 정열과 패기, 중년의 은근한 기법과 시어로 보아 과거에 대한 향수와 인생의 성찰이 그의 시 세계에 흐르고 있으며 바로 시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지닌 시인이라 하겠다.

평범한 문체에 담긴 관조미

외국시의 소양과 더불은 독특한 시어관

한때 스페인 문단에서 크게 활약

<작가연보>

1943. 1. 1. 전남화순출생

1975 스페인 마드리드대학 국가문학박사학위

1979 외대부교수

1968「창작과 비평」에「밤으로의 작업」외 4편 발표

1971 A Cuerpo Limpio, Madrid (맨 몸으로)

1974 Tierra Azul, 1974, Madrid (푸른대지)

1977 Vtrsos Coreanos, Laracas Ventzuda.

1978 Isla (섬) Barcelo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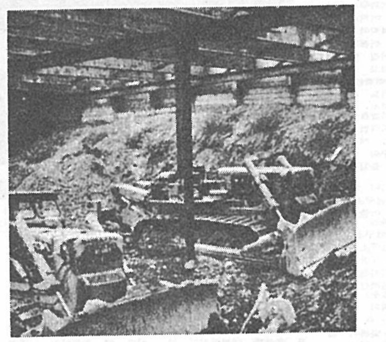
1980 시비시 (詩非詩) (시선)문학사상출판예정.

올드랭 사인

<이동건>

이대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람에 떨어진 꽃잎
전기줄에 매달린 연이
아직도 잉잉거리며 살아를 있는데
그만 녹슬어 버린 하현 달빛의
살름을 버리고 표연히 사잇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일까
끝없이 출렁이던 술잔에 머리를
처박고 관용을 배풀수 있다던
우리의 형적이
이슬 한방울만 못하게
천국으로 지옥으로
구멍이 밥넘어가듯 피화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인지
말해다오 목소리의 주인이시여
철새가 날아 오르는 들판의
그림자로 쓱스럽고
그대와의 화해도 웃기는 문제였지
때때로 자기를 방치해 두는게 억울해서
때라도 묻히며 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대로 떠날 수 있는가 반문하는
바위의 일에 익숙한지도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진정으로 심장 한구석에서
울고 있는 미친 놈의 사내를 기억한다면
방바닥에 말뚝을 박고
은빛이 산산조각나는 영화로운 꿈을
꾸게 해주지
나를 그렇게 해주지.

<이란어과 1년>



모두 서울고, 철탑처럼 통발한 저녁/흩난한 신어명의 아낙네, 스스로의 해방으로 사라진뒤/빈 공사장에 녹슨 지층이 흙어 울때/나도 일어서서 가야한다면/제철은 돌며와서 잠자고, 미움의 깊은 때가 쌓이고/돌아볼 역사 마저 사라진다…

꽁트

축제에 초대합니다

이경호

그리 좁지도 않은 방이지만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구간치에 두 다리를 얹어 걸쳐놓고 드러누워 발가락 길이를 가늠하는 영훈은 오늘도 무료하기 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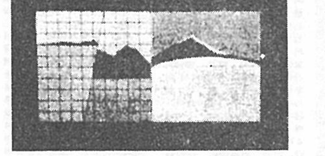
입사 (入社) 한지 이 년이 되도록 말단 평사원으로, 그나마 자리도 몇 개 없는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서 그저 밥이나 먹으려 한 것은 애시당초 그의 나태였다. 사람들이 흔히「느닷없다」고 표현하는 감원 바람에 재수없이 말려들었다는 그의 불평 역시 능력없는 이들이 늘상 그렇듯 상황의 힘을 과대선전하는 것에 지나지않았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엄두도 못내고 어느덧 두달 가까이 빈둥거리는 지금처지로서는 그저 닿는 대로 지난 일들을 짚어 떠올리며 시간을 쪼개는 것이 상수라고 영훈은 생각한다.

국민학생 시절, 어느 날 저녁 밖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그에게 어디 극장의 무료관람권을 열 장 씩이나 건네주었다. 그것은 신명나게도 어느때든 한 장으로「프리패스」인 특별한 것이었다. 그냥 작고 둥그란 도장만 찍혀 사제 (私製) 냄새를 풍기는 이 종이쪽의 실효를 확인하면서 곧 그는 이렇게 대단한 물건을 갖다줄 수 있는 아버지가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신문을 읽을 수 없던 때인지라 아버지가 멋진 글을 쓰는 지는 몰라도, 어하튼 신문기자라는 아버지의 직업이 모자란 안 쓴 왕이라고 배운 어린 그에게 이 희한한 물건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재확인시켰었다.

그 뿐, 대학을 나와 취직과 퇴직에 이른 오늘까지 그에게 자부심을 선사했던 그런 물건은 기억하는 한 거의 없었다.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 물건에 현혹되었다가 배반당한 기분이었다. 술에 곤죽이 되어 돌아온 다음 날, 창피하게도 아직 이마빡에 피도 안마른 중학생 동생 녀석으로부터 정신차리라고 핀잔을 받은 며칠전 일만 해도 그렇다….

본의는 아니나 덕분에 보다 많은 수면과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게 된 그에게 두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전개됐다. 졸업 후 어떤「오키스트러」의「첼리스트」로 기용된 학교친구가 자기가 나온다는, 비매품 인쇄도 선명한 초대권을 보내온 다음 날, 그가 회사를 그만두기 한 달전쯤 청주 모여고 교사로 이임발령이 되어 내려간 후 순전히 둘의 게으름으로 소식왕래가 없던 소위 그의 애인이 불쑥 상경하겠다는 엽서를 보내 온 것이다.

도착 예정일 저녁 때쯤 그녀집에 전화를 건 그는 오랫만에 만나기는 해야겠고 별반 할말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 얼떨결에「그 음악회」나 가자고 약속을 해버렸다. 수화기를 놓기전에 실직한 얘기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놓고 말았다.

그러곤 생각해 보니 잘한 일인것 같았다. 전화로 할 말도 못되고 이미 얘기 순서도 바뀌었고 게다가 한 달 이상을 지루하게 넘긴 그에게 지금은 어가의 선용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기정(既定) 된 내일의 일정은 별다른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그에게 훌륭히 부응할 것이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선율에 젖은 포만감과 팔에 전해오는 앙갚있는 그녀의 어깨를 실감하며 음악회장을 나와 버스정류장까지 뻗은 좁은 가로를 걷는 광경을 생각했다. 요행히도 모처럼의 음악회가를렌찮아서 그 찾아도 흔하게 얻어 걸리지 않는「감동」을 주었고 게다가 문을 나와 첫 눈과 맞닥뜨린다면 그는 강아지를 방불할 만큼 과장되게 눈을 반기면 동료 어사원을 이해하겠노라고 결심했다. 급기야 그는 이 밥 설빔을 대학 때 여러가지 곡절로 한 번도 참여치 못한 축제에다 끌어붙여 내일은 자신의 축제라고 멋대로 결정하고 그 그럴사함을 신통해하며 다음 날 곧 실천에 옮겼다.

이발을 하고 구두도 광내어 닦고 넥타이도 화려한 것을 골라 매면서 할 수 있는 것 정장을 위한 준비로 낮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실로 오랫만의 은밀한 즐거움이었으며 그자신「실직자의 재기」라는말로 조금 벗적음을 지우려했다.

허나 음악회의 개막 시간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커피숍엔, 물론 어디에도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하릴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토큰」과 같이 접혀나온 초대권의「비매품」도장이 승강구 불빛에휘딱 스쳐지나갔다.

× ×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서 떠들어대던 중년남자는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포장마차에 들어온지도 꽤 되었는 지 아까까지 뒤로 지나가던 한길의 차소리도 뜸해졌다.

일어서서 집히는 대로 천원짜리 두장을 내놓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를, 결혼 일 년 만에「이 짓」에 나섰다는 아주머니의 오십 원 받아가라는 소리가 할퀴고 지나갔다. 눈빛이 올 화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벌나발 불고 고꾸라지거나 이 소갈머리 없는 여자에게 당장 포장집 때려치우지 못하겠느냐고 힘모아 일갈 했어야 할 일이 었다.

함에도, 하다못해 취한 지경조차 빌릴 수 없는 그의 옹색한 힘이 엉뚱하게도 아랫배로 모아졌다. 담벼락 무대에 축제가 벌어졌다. <일어과 3년>

신간 소개

『서반아·라틴 아메리카 문학사』 장선영 교수

본대학 서반아어과의 장선영 교수가「서반아 라틴아메리카 문학사」를 상재(上梓)하였다. 일찌기 한국번역문학상의 수상으로인 증된 바 있는 장교수의서어권 문학에 대한 깊은관심이 또 하나의 결실을거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책에는 서반아어로된최초의작품「엘시드의 노래」가 나타난 12세기부터 시작해 동키호테가 빛을 본 16~17세기 서문학과 20세기 현대문학에 이르도록 정수(精髓)를 망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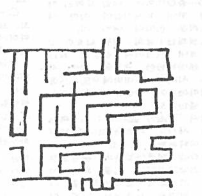
서반아어과 학생만이 아닌 대학인의 교양서로 읽혀져 세계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는 서문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유려하게 흐르는 필치가 눈길을 끈다.

그동안 본보에서는 본대학 출판부의 역동성 제고(提高)를 강조해 왔거니와 타대학의「교양총서」류에 비견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는 최초의 것이 아닌가 한다. 출판부의 한발 쭉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교양물에 주력할 것이라하는데 부디「서반아 라틴아메리카 문학사」가 유·무형의 측면에서 좋은 수확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권말 부록엔 저자가 이때까지 저술 또는 번역한 책과 논문의 색인이 실려있는데, 모처럼 정리한 김에 간행 출판사나 수록도서까지 밝혀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4·6판 290면 2,300원 <길>

이문만평



미로 여행

당신도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읍니다!!

한번 익힌 언어는 교정이 매우 힘듭니다!!

●「영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번 익힌 언어는 교정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영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당신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영어회화」를 배우려고 생각하신다면, (SDA·삼육영어회화학원)을 지금 곧 찾아 주십시오.

원장/석 호 필 박사 Dave Scofield

●(SDA)는 세계적인 영어교육기관입니다.

지난 10년간 약10만여명에게「영어회화」를 가르쳐 온 (SDA)는 일본·홍콩·대만·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폴 등 6개국에 자매학원을 가진 세계적인 영어교육기관입니다.

●전원 미국인 강사진으로 구성—완전 미국식 학습분위기!

미국에서 어학교수 특수훈련을 받은 전원 미국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의 어학실습실과 학생휴게실을 갖춘 완전 미국식 학습분위기로 지성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동양 최대의「영어회화학원」입니다.

●실제적이고도 산 영어를 최신교수법으로 지도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위하여, 실제적이고도 산 영어를 성의있는 최신교수법으로 지도하여 단 한 분의 노력에 상당한 보답을 약속합니다. (SDA·삼육영어회화학원)은 서울(청량리·영등)에 두군데, 부산, 광주에서 저렴으로 동시에 개강합니다.

서울 청량리 영동 부산 광주 동시개강

●서울회원 청량리 본 수강신청시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환영자에 한하여 수강공록을 할 수 있읍니다.

개 강(현재접수중) → 1월 5일

삼육영어회화학원

SDA ENGLISH LANGUAGE INSTITUES

軍행정병모집

●만17~25세·소정교육후 행정병으로 입대·공채·승진시 점수가산혜택 ●교련단축·복학시기조절가능 ● 本院은 육군본부위촉 행정병양성기관임

종로1가 버스정류장 서울농협옆 ⑦2323 ⑦9716 유니타자학원

●유학생을위한 논문타자 ●취직대비자를위한 교양타자 ●이민가실분을 위한 실무타자 ●外大타자강사 직접지도 ●시설=美國최신형 S·C·M타자기보유 ●1개월完

大學 교양打字

안경은 시력검사따라 광신안경

▲고도근시 ▲백내장용 ▲가벼운렌즈

신예용안과 1층 (3·1빌딩~종로중간)

民法 會計 經濟學 物權 總則 學

1個月완성·科目別受講 就職·入社·각급資格시험 부동산鑑定士종합·講記

每月 1日 開講

公平学院 콜럼비아

⑦0600 ⑦0706

和信(신생)백화점옆골목

유학안내

●유학시험, 학교선정, 수속절차등 정보제공 ●신청서작성부터 I—20 취득까지 책임서비스 ●추천서, Study plan, Autobiography작성 ●개별수속보다 신속정확, 시간 경비절약 ●이민자를 위한 어학코스 입학허가도 취급

KOREAN OVERSEAS EDUCATIONAL INSTITUTE

(광화문·현대건설뒤 세종빌딩 202호)

전화 ⑦ 0776

취직 TOEFL (李在玉編) 各企業體 出題傾向제시 연 소 문 先生

유학 TOEFL (三榮書館編) 유학시험 出題傾向제시 김 수 先生

大一學院

成人部 수강료月 6,400원

서울역앞 버스정류장 795—0111~3

●各級試驗 준비講座

TOEEL (李存玉편)

(就職·대학원試驗·編入·유학생·자격試驗對備)

英語英作 ●高級英作文研究 綜合英文解析研究

(中·高級의 主재관式 英作文研究의 最高 權威講座)

성문 綜合英語 英語지식 基本整理

개강:每月 1日수시接受可

公平学院 콜럼비아학원

☎0706

DISCO DECK DISCO DECK

대학가의 화제 MEETING은 디스꼬레아로

2F open 기념 시간 최대 연장

국내 유일의 디스코 덱크

수시예약접수 : 260-3546(기획실)

Super DiscoGroupSound

석기시대(7인조)의 열광의 Stage

Original Disk 다량구입 4ch Altac System.

Original Disco Deck 디스꼬레아

파고다공원 건너편(국일관1층) ☎ 260-35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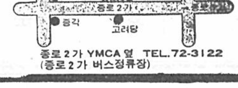
RESTAURANT 사랑과 평화

젊은이의 대화의 광장

화려하고 아늑한 분위기
조화로운 음률속에
젊음과 지성이 꽃피우는곳
여기, 종로의 어느한곳
Restaurant「사랑과평화」가
새롭게 단장하였읍니다.

맥주
생맥주
₩380
차와 음료
그리고 경양식
실비로 제공합니다

오세요. 보세요. & 이야기하세요.
단체회합은 더욱 환영합니다.



종로2가 YMCA옆 TEL.72-3122 (종로2가 버스정류장)